

# 종립대학, 아시아 불교대와 네트워크 활발

## 동국대·스리랑카, 금강대-파키스탄과 교류 협정

동국대와 금강대를 비롯한 종립대학들이 아시아 지역의 불교권 대학과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2월 13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콰이드이아잠(Quaid-i-Azam)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도 탁실라르 아시아문명연구소와 교류협정을 맺었다.

금강대는 "이번 협정은 불교학 연구 및 아시아 문화교류사추 연구 및 교육역량 증대, 금강대 학생 교류, 간다라 지역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콰이드이아잠 대학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소재하는 파키스탄 명문대 가운데 하나이다. 동서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던 간다라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문화 교류 및 아시아 문명 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다. 탁실라르박물관은 파키스탄 소재 라호르박물관, 페샤와르박물관과 많은 간다라 유적을 갖고 있다.

금강대 관계자는 "불교 유적지 및 고고학적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탁실라르 아시아 문명연구소와의 협정은 관련지역 연구가

미비한 국내 학술계에 새로운 학술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문한국(HK)사업의 아젠다에 맞춘 연구성과물 출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강대는 2005년 중국 북경대·일본 대정대에 이어 대만 불광대·중국 불학원·일본 도요대학 등과 학술협정을 맺은 바 있다. 2006년 8월에는 파키스탄 편자르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 대학 도서관의 인도학·불교학 관련 사본을 국내 최초로 본격 입수하는 '울너(A. C. Woolner) 컬렉션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술교류 움직임은 최근 동국대의 움직임에서 촉발됐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2월 3~5일 스리랑카 켈라니아(Kelaniya) 대학과 페라데니아(Peradeniya) 대학을 잇따라 방문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와 스리랑카 대학 간의 학술교류 협정은 남방불교 전통을 갖고 있는 스리랑카의 대표적 대학과 대승불교 전통의 대학 간의 핵심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북아시아 4개 대학



지난 5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학술교류 협정(MOU)을 체결한 김희옥 동국대 총장(왼쪽)과 페라데니아 대학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대, 도쿄대, 베이징대, 대만 국립대)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향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태국 등의 남방불교권 주요 대학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위 아시아불교대학 네트워크(Asian University Network of Buddhist Studies)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류협정을 체결한 페라데니아대학(Univ. of Peradeniya)은 1942년 설립된 스리랑카의 공립대학으로 8개 학부 2개의 대학원 연구소, 10개의 센터와 73개 학과

를 거느린 스리랑카의 주요 대학중 하나다. 켈라니아대학(Univ. of Kelaniya)은 1857년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과학과 의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경영학 등을 주요 학문분야로 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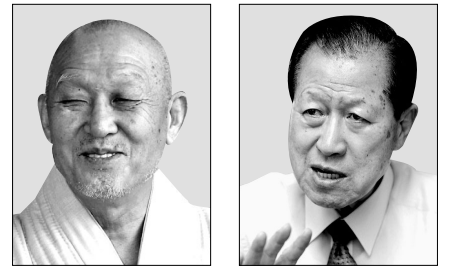
해외교류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중옥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불교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불교학의 활성화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감동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중앙승가대, 종림 스님·주영운 이사장 名博

### 한국불교발전과 인재양성 공로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이 2월 27일 김포 중앙승가대 본관 자비관에서 열린 2014 학위수여식에서 한국불교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종림 스님은 1996년 세계 최초로 고려대 조조대장경을 전산화했다. 2010년 조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를 한일 공동으로 구성하고 조조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주영운 이사장은 중앙승가대 교수들과 학인스님들에게 연구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발사에 큰 힘을 보태왔다. 1991년 서울시 교육장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행원문화재단을 통



종림 스님 주영운 이사장

해 불교사상을 토대로 문학이나 예술, 경전번역에 앞장선 불자들이 선정해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호연 스님(제8호), 수암 스님(제9호), 보은 스님(제10호) 등 3명의 박사 학위자가 나왔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교대학 8년 만에 교수 임용

### 김영진 교수, 경주캠퍼스에서 천태학 전공 담담

동국대가 8년 만에 불교학과 신입교수를 총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교수로 김영진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45)를 임용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2006년 권기중 교수가 정년퇴임한 이래 7년간 11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했지만 교수 총원은 전무했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2007년 천태학을 전공한 김영진 교수 퇴임 이후 8년 만이다. 김영진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대 중국사를 전공한 김영진 교수는 '중국 근대불학의 사상기원', '중국근대 진화관념의 불교적 대응', '중국 근대 정토신앙의 세 가지 경향과 그 시대상' 등 연구를 진행했으며 '근대중국사상사학론', '근대 중국의 고승' 등을 저술했다. 김 교수는 3월부터 대승불교개론과 천태학강좌 전공 6학점을 담당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한국의 사지> 강원·경남·전북편 발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함께 강원·울산·경남·전북 지역의 폐사지(廢寺址) 558개소에 관한 문헌조사, 정밀 현황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한국의 사지> (강원·울산·경남·전북 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강원·울산·경남·전북 지역의 폐사지에 관한 현장조사사를 통해 사역(寺域), 식생(植生), 유구·유물 현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수록됐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과거 해당 사지에 존재했으나 현재 다른 곳에 보관 중인 문화재의 사진을 수록하여 사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주요 석탑은 3D스캔을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또 지난해 처음

으로 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올해에도 별책 부록으로 넣었다.

이 학술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물은 앞으로 사지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의 마지막으로 대전·충남·충북 지역의 사지 1,367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전문이 게재된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정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 필요”

### 김광식 교수, 한일불교유학협 세미나서 강조

“조계종 정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화 이념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사지)는 2월 20일 한일불교유학협회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동계세미나에서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발표에서 정화 이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경우 개혁만 있지 정화이념에 대한 조명이 없다. 조계종·태고종 모두 정화운동사가 단 한권도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화운동 관련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근현대 한국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적기 때문”이라며 “문도회에서 큰스님 선양을 중심으로 한 주문에 의해 조명이 이뤄지다 보니 전체적인 조명이 없고 연구자도 연구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현재 객관성과 비판성이 없어 긍정적으로 보는데 치우쳐있다”며 “정화운동 이념은 타당성을 갖췄지만 그 실행에 있어 폭력성이 개입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화운동의 모순점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며 “정화운동 과정에서 소외된 스님들과 재가자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결국 정화운동은 대처승, 산중공의제와 원용살림의 파탄, 사찰공동체 파괴 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된 개혁불교와의 연관성·차이점 등을 찾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한편, 이에 앞서 한일불교유학협회는 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흥선 스님(범어사 교수)을 추대했다.

흥선 스님은 13세인 1953년 지효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5년 경남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하나조노대, 불교대 석박사 과정, 도쿄대 연구생 등으로 일본에서 13년간 공부했다. 1980년 도미해 시카고 불타사를 중창한 스님은 1992년 귀국해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범어사 교수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인환·월탄 스님을 비롯해 30여 회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문화강좌, 3월 19일부터 개강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은 3월 19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서울 조계사 내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불교신도를 포함한 일반인과 승려연수교육(30점)을 필요로 하는 조계종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불교 스님 특강 △영화와 세계유산으로 본 불교 △불교회화 심화 연구 등 세 분야로 나

눠 10개 강의로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돕고 저변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총5회에 걸쳐 불교문화강좌를 열어왔다”며 “이번에는 불교문화와 한국불교,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강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 제65집’ 원고 모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70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불교교학과 불교사학, 응용불교 등 3개 분야이며 원고 마감

일은 4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원고는 심사비와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주어지며 학회지는 내년 6월 30일 발행될 예정이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제 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강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총무원장 **향운** 협장  
교육부장 **상일**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 월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108배

표정+자세+동작+호흡법+동작알아차림+염불대입+깨달은 절

700만배 청견스님 깨달은 절수행 완전공개

**완벽하게 절하면!**  
**만병통치유**

깨달은 절수행 배우시고  
부처님가피 100%  
건강소원성취 100%

♣ 스트레스 0 불면증 100% 피로즉석 우울증  
냉병 화병 상기병은 같은병

절교육 절수행 점검 상담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 주 소 : 대구 수성구 매곡동 1344-23 다비지 5층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 회원대상 :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 수련기간 :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 ~ 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 수련학습내용 :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희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희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 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